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 투시도. /홈페이지

수방사 일반청약 1147 대 1 공공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

22세대 모집에 2.5만명 접수
서울 중심지에 한강조망 ‘인기’

서울에서 한강뷰가 가능한 알짜 입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4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특히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이 대거 몰리며 경쟁률이 공공분양 사상 최고 기록을 남기게 됐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전일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 결과 22세대 모집에 2만5253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무려 1147대 1에 달한다.

경쟁률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최고를 기록했던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1025대 1)는 물론 전국 최고 경쟁률이었었던 성남수정구관교테크노벨리 중흥S-클래스(1110대 1)보다 높다.

앞서 조건이 제한적인 특별공급 역시 평균 경쟁률이 557대 1로 높았다. 30세대 모집에 1만6724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경쟁률이 1000대 1을 웃돌았다.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단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 중심지인 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라 사전청약 당시에도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하면서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됐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2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1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5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로또 청약’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이며, 입주는 2028년으로 예정됐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각각 3년이다. /안상미 기자

예적금에 뭉치돈... 통화량 15개월째 ↑

8월 시중통화량 4602.6조
한 달 전 대비 7.6조 증가

올해 8월 시중에 풀린돈이 7조6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미리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증시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4062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조6000억원(0.2%)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3% 반등한 이후 15개월째 상승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11조5000억원 늘었다. 한달 전(5조3000억원)과 비교해 2배 많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자금유치 노력을 확대했다”며 “당시 금리가 제일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예

적금을 가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정기예적금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통화성 상품도 3조8000억원 늘었다. 수출호조와 증시변동성 확대로 투자 대기성자금이 증가해 외화예수금과 CMA를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금융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해 상반기 은행채를 선발행하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발행을 이연하면서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정기예적금 및 시장형상품 중심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부문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2조원 줄고, 기업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시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은 8월 기준 1217조8000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1조2000억원, 0.1% 증가했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강 작가가 부른 ‘독서열풍’에 카드사, 도서할인 등 마케팅 분주

한강작가 작품 온오프 ‘완판 행렬’
우리카드, 선착순 130명 할인쿠폰
비씨카드, 에스24·교보문고 할인
기존 카드 도서할인 혜택도 많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카드업계 또한 분주한 모양새다. 도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준비하면서다. 도서 관련 혜택을 담은 상품도 출시했던 만큼 과거 발급 받은 신용카드 기능을 점검해 보라는 조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우리카드는 도서 구매 고객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매일 선착순 130명에게 2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에스24에서 ‘우리 원 페이’를 이용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비씨카드는 ‘마이태그’를 활용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에스24와 교보문고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한다. 비씨카드는 물론 I 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등을 포함한 회원사 12곳의 신용카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도서 할인 행사가 활발해질 것이라 관측이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원서를 소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종이책 읽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텍스트립(Textrip)’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래 고객을 확보할 기회라는 평가다.

현재 한 작가의 작품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완판 행렬을 이어 가고 있다. 한 작가의 수상 이후 쿠팡에서는



서점에 방문한 한 시민이 한강 작가의 시집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채식주의자’가 1시간만에 모두 매진됐다. 서점가에서는 물량 부족에 예약판매를 접수 받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노벨상X한강’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에스24 국내도서 톱 8위는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이다.

카드업계에선 과거 발급했던 신용카드 혜택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각 사별 발급량이 높았던 상품 중 도서 할인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보유한 신용카드 수는 4.4장이다. 장롱속 카드를 확인해 볼 만 하다.

삼성카드의 베스트셀러인 ‘모니모카드’는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적용한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금액의 7%를 월 최대 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1만원이다.

신한 레슨 플래티넘(Lesson Platinum)은 ▲에스24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서 구매 가격의 5%를 할인한다. 전

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5000원이다.

KB국민 다담카드는 ‘선택적립 서비스팩(교육팩)’을 선택하면 서점에서 월 최대 1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은 30만~60만원이며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5000원, 해외겸용 2만원이다.

독서에 취미가 붙었다면 제휴카드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강자인 현대카드의 ‘에스24 현대카드’다. 에스24에서 sey페이로 결제하면 한도 제한 없이 적립 가능하며 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독서 유행이 가파르게 번질 것”이라며 “도서 할인의 경우 저렴한 연회비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과거 발급 받은 카드를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이재근 행장 “기존에 없던 새 상품 만들 것”

KB국민은행-스타벅스 업무제휴
생활밀착형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

KB국민은행과 스타벅스가 손을 잡았다.

KB국민은행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특화 금융상품,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업계 선두주자인 두 기업은 상호 협력을 통해 커피와 금융이라는 각자의 분야를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스타벅스 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행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3400만명의 KB국민은행 고객과 1300만명을 돌파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양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또 “고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오른쪽 첫번째)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왼쪽 첫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객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 밀착형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계좌 간편결제 도입 ▲제휴 통장 출시 ▲KB국민인증서 도입 ▲고객 리워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스타벅스 앱에 오픈뱅킹 기반 계좌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 형태의 스타벅스카드와 신용카드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휴를 통해 계좌 결제 방식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